



표지출처: 송실대학교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모집포스터

제2회

평화통일학교

2022. 6.5(주일) ~ 26(주일), 오후 3시

6.24(금), 오후 8시

 기독교
대한감리회 **안성제일교회**

목차

CONTENTS



- 01 초청의 글
- 02 평화통일학교일정
- 03 1강
북한이탈주민 이해 - 김의혁 교수
- 23 2강
인도적 대북협력의 성과와 과제 - 이주성 권사
- 55 3강
북한 이해 - 송혜연 목사
- 71 4강
금요기도회 설교 및 특강 - 강철민 목사
- 79 5강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 김권능 목사
- 97 메모

“북한 이해”

제2회 평화통일학교의 주제입니다.

아주 단순한 표현이지만, 사실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한 말입니다.
무엇을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나만 이해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나의 주도를 넘어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를 이해함으로 내가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는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잘못하면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제2회 평화통일학교 주제를 “북한이해”로 정하면서,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칫, 나는 잘못 없는데, 잘못된 너를 내가 이해해 볼게, 하는 식의 힘의 이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제로의 북한을 이해하자는 것은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옛 상처로만 머물지 말고, 지금의 북한을 바라보며, 결국에 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상대의 티끌을 보다가, 나의 대들보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이해는, 지금까지 이해하며 살지 않았던 나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상대를 다시 보게 되면, 서로가 이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은 북한의 형제자매에게도 계십니다.
결국 서로를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명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평화통일학교를 통해, 그러한 새로운 사명이 발견되고, 결단되는 시간이길 기도합니다.

안성제일교회 평화통일학교란,

평화.

이것은 주님이 이루실 평화입니다.

주님께 배우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비폭력적이고, 적극적인 평화입니다.
이는 정치적 이념을 넘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우선적 가치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통일.

이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준비하고 살아내야 하는 실천적 방향입니다. 또한 성경적 통일관을 가지고자 합니다.

학교.

이를 위해 배우고, 행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 각자의 영역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선교적 삶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성제일교회 평화통일학교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의 사도로 부름 받아, 분단을 향해 복음으로 외치고 기도하며, 행하는 일꾼을 세우기는 꿈이요, 실천입니다.

우리의 배움이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평화통일을 이루고 사는 때에도 계속 이어지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평화통일학교를 통해, 남북의 분단을 넘어, 온 열방을 향한 평화공동체를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동참하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평화통일의 일꾼입니다.

제2회 평화통일학교를 열며 **담임목사 이선진**

제2회
평화통일학교
일정

1강

2022.6.5(주일) 오후 3시

북한이탈주민 이해 - 김의혁 교수
북한이탈주민에 관하여

2강

2021.6.12(주일) 오후 3시

인도적 대북협력의 성과와 과제 - 이주성 권사
북한을 오가며 교류했던 북한사람들의 이야기

3강

2022.6.19(주일) 오후 3시

북한 이해 - 송혜연 목사
북한에 대해 북한에서 이사 온 분을 통해,
북한을 듣는다.

4강

2022.6.24(금)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설교 및 특강 - 강철민 목사
비를 준비하는 지혜 (해방과 분단,
6.25 전쟁의 과거 역사를 통해,
통일을 준비하는 사명을 준비)

5강

2021.6.26(주일) 오후 3시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 김권능 목사
고난의 행군으로부터 탈북과 복음을 듣게 되고,
목사로 부름 받은 하나님의 사역 이야기

1강

북한이탈주민 이해 - 김의혁 교수 북한이탈주민에 관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시선을 성찰적으로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북한을 떠나 한국에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의 상황과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며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에 대하여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 서울대학교(B.A.)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졸업
-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Intercultural Studies) 전공, 박사학위(Ph.D.)
- 제2하나원(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교육기관)의 하나교회 담당목사 (전)
- 송실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교수 (현)



북한이탈주민에 관하여

김의혁 교수
(송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2021년 10월 7일 기사

 연합뉴스

미 상원의원, 한국계 판사 근면성 칭찬했다가 '편견 논란' 가열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한국계 여성 최초로 연방고등법원 판사로 지명된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와 관련해 한국인...

1일 전



공화당 최고령 상원의원인 척 그래스리는 고 지명자 인준 청문회에서 ... 한국계 미국인인 자신의 며느리가 "내가 한국 사람들로 부터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근면한 직업윤리다. 그리고 어떻게 무에서 많은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래스리 의원은 이어 "그래서 나는 당신과 당신네 사람들에게 축하를 건넨다"고 밝혔다.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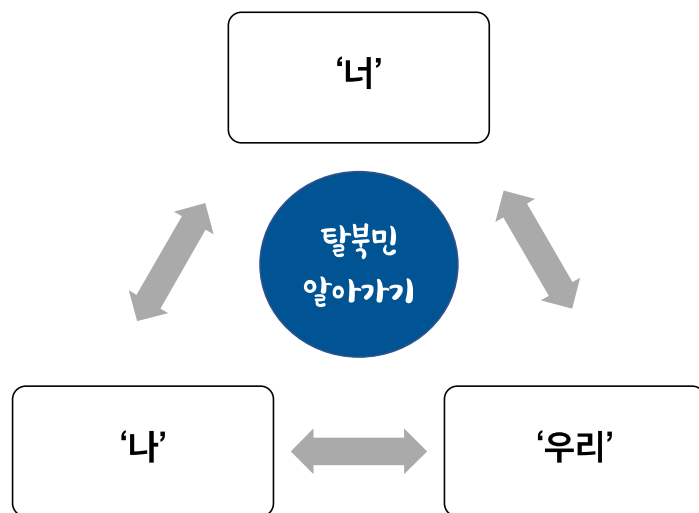
-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은 '근면 성실하다'는 고정관념을 부추긴다.
- 설령 그의 동기가 선의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 그룹의 모든 구성원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폭력을 가져올 수 있다. (주디 추 하원의원)
- ”의도는 이해하지만 친절한 것일지라도 고정관념은 해롭고 커뮤니티의 분열을 초래한다”라면서 ”근면함은 한국계 미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및 인종의 많은 미국인이 공유하는 가치이다.” (존 C. 양)

‘모범 소수민족’ (model minority)

- '모범 소수민족'(model minority)이란 개념은 흑인이나 라틴계, 원주민 미국인에 비해 아시아계 미국인이 더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야망과 헌신 때문이라고 주장
- '모범 소수민족' 개념은 다른 인종 그룹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흑인이나 라틴계 미국인 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고 WP는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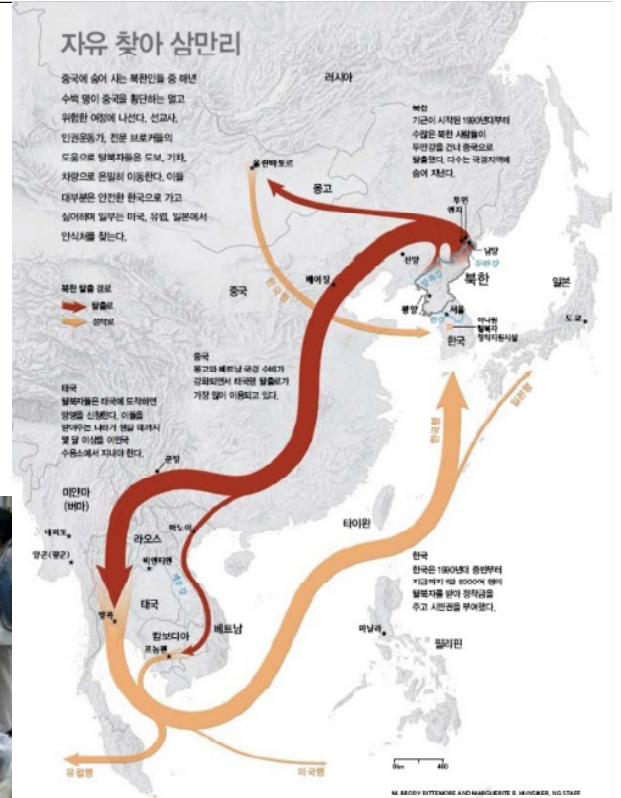
•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에 관하여 공부한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은 다 다르다!



북한 주민의 탈북 및 남한 오는 경로

- 몽골 루트 (중단)
- 기획 망명 (중국 및 제3국 대사관)
- 러시아와 중앙 아시아
- DMZ 혹은 서해와 동해 바다
- 중국 -> 라오스/버마/베트남 -> 태국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잠정)	합계
남 (명)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88	168	202	72	40	9,475
여 (명)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969	845	157	23	24,340
합계 (명)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1,137	1,047	229	63	33,815
여성 비율	12.2%	45.8%	55.3%	63.1%	67.0%	69.4%	74.6%	77.6%	78.3%	77.3%	75.4%	70.6%	73.1%	75.6%	78.2%	80.3%	78.7%	83.3%	85.2%	80.7%	68.6%	36.5%	72.0%

(단위:명)

한국 내 체류 외국인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인구	51,696,216	51,778,544	51,826,059	51,849,861	51,829,023
체류외국인	2,049,441	2,180,498	2,367,607	2,524,656	2,036,075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중국	1,016,607	1,018,074	1,070,566	1,101,782	894,906
베트남	149,384	169,738	196,633	224,518	211,243
태국	100,860	153,259	197,764	209,909	181,386
미국	140,222	143,568	151,018	156,982	145,580
우즈베키스탄	54,490	62,870	68,433	75,320	65,205
필리핀	56,980	58,480	60,139	67,398	49,800
일본	51,297	53,670	60,878	86,196	26,515
기타	479,601	520,839	562,176	607,551	461,440

출처: 법무부 (moj.go.kr)

호칭의 변화

귀순용사/귀순북한동포/귀순자

- '귀순(歸順)': 반항심이나 반역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어떤 체제에 복종하거나 순종함

탈북자

- '출(出 자)'가 들어가서 안 좋은 어감. 부정적인 이미지.

북한이탈주민

-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가치중립적인 표현

새터민

- 2005년 1월 통일부 결정: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사는 사람' (순우리말)
-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색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남한사회의 안정된 정착이 우선됨
- 호응 못 얻고 반발

탈북민/북향민/윗동네분...

“정책 용어 사용이 불가피할 때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이주배경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등 정책 용어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공통의 어려움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집단의 이름이
 나의 전(全) 존재를 규정하게 되는 순간, 나는 그 이름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다.
 그 이름은 분명 나의 일부이긴 하지만 결코 전체가 아닌데
 사람들은 그 규정 안에서만 나를 본다. 더욱이 그 이름은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붙여지는 경우가 많기에
 타인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나는 계속 그 이미지에 머무르게 된다.
 그런 경우 그 이름을 부정하지 않으면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포박감을 느끼는 순간이 오게 된다.”

이향규 “[소수자의 눈으로 한국사회를 본다] 탈북자를 넘어서”

모범적인 탈북민의 조건!?

- 첫째, 탈북민은 한국 사회에 위협적이지 않아야 한다.
- 둘째, 탈북민은 통일을 앞당기는 일과 통일 후에 북한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
- 셋째, (통일의 사명을 위해서) 이들은 한국 문화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
- 넷째, 탈북민은 한국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빨리 자립해야 한다.
- 다섯째, 교회의 입장에서 탈북민은 빨리 예수 믿고 북한 선교사로 살아야 한다.

위의 기대들이 꼭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위의 기대들이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의 너무 ‘일방적인 바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행복한 시민이자 그리스도인으로

- 통일이라는 짐 대신 먼저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 먼저 탈북민을 '새로운 이웃'이자 낯선 땅에 정착하는 '이주자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 우리가 한 사람의 탈북민을 마주할 때 먼저 중요한 것은 통일이 아니다
-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

“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들이 물질이 풍요한 사회 속에서도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즐겁고 보람되게 사는 모습을 남과 북에 있는 주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통일이 한 걸음 앞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탈북민 목회자)

한국 정착 과정에서의 어려움



- 남한의 경쟁적인 자본주의 문화
 - 3D업종, 노동강도, 자존심, 돈 개념
 - 건강, 고집, 자존심, 문화 차이
- 기대와 현실의 괴리
- 재정적 어려움
 - 브로커 비용
 - 북의 가족에게 송금
 - 사기
- 학교에서
 - 학교 적응의 어려움
 - 탈북 대학생 1/3 가량 휴학
 - 언어 문제

한국 정착 과정에서의 어려움

- 차별 대우와 소외
- 가정 해체
- 불안한 심리 (PTSD)
 - 굶주림, 가족 죽음, 공개처형, 고문 경험, 복송 불안
 -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 걱정과 불안
 - 인신매매, 폭력, 육체적-정서적 학대 경험
- 고독과 외로움, 그리움
 - 애도의 부재
- 남한 사회 정착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 높은 자살률
 - 탈남, 재입북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

- “시간 약속과 신용을 잘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데에 민감하다고. 북한에서는 김정일 지시만 따르면 나머지는 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생각을 타협하거나 조율하고 그런 거를 모르고 살았어요. 사람들 간에도 약속에 대한 의미가 약해요. 나간다고 해 놓고 내가 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약속 안 지켜도 그 사람 다시 볼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만 하면 되니까... 너 없어도 나는 농사지으면서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기차도 출발하고 도착하고 그런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기차가 오늘 온다고 해서 기다렸어도 내일 온다고 하면 그런 거고... 또 기다렸는데 안 오면 그런 가보다... 또 기다리는 거구 그렇게 살았어요. 사회가 한국처럼 타이트하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라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 “하나원에서 새터민들은 왕따 될 각오를 하고 사회에 나가라고 했어요. 우선 북한 말씨부터 고치지 않으면 사람들하고 심리적 교류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가까이 쓴 말씨를 어떻게 바꿀 건지...”
- “진짜 외로워요. 재미가 없고 사는 즐거움이 없지. 거기는 외롭지는 않았지. 여기서 먹는 거는 배불리 먹는데 사는 게 즐겁지 않아. 여기 오래 온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 10년 살아도 20년 살아도 거기 추억만 생각하지, 여기 추억은 없대요. 오직 북한에서 재미나게 살던 추억만 생각하고, 체육대회 때 놀고, 명절 때 집집마다 다 나눠 먹어요.”

남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는 북한이탈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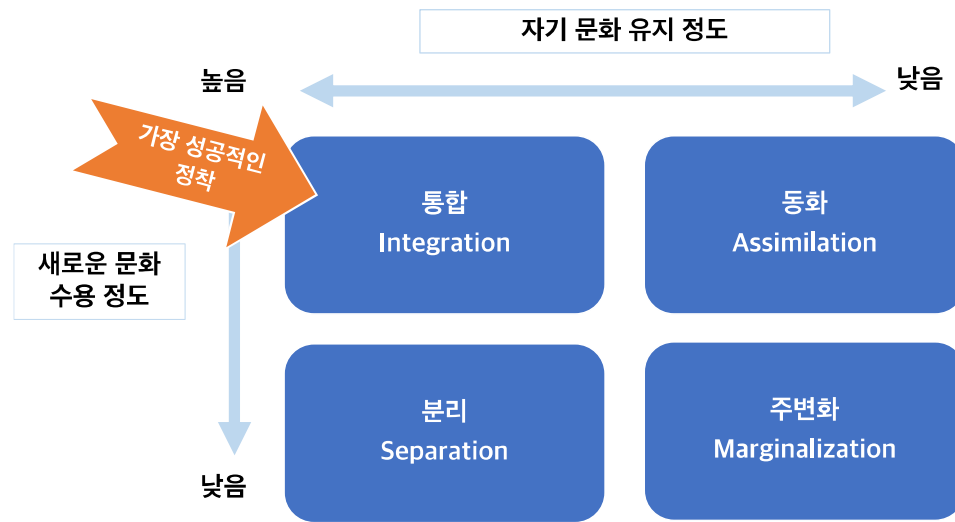
- 이분법적 사고 방식
- 강한 고집과 직설적 말투
- 가치관의 공백 상태
- 고마워하지 않는다!?
- 거짓말을 잘 한다!?
- 주입식 교육에 대한 거부감
- 짧은 인간관계의 유효기간!?
- 의리와 정
- 솔직함, 성실함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용납의 문제이다!”

한국사회의 부족한 감수성

- “너 이런 거 북한에서 못 먹어봤지?”
- “북한에는 이런 거 없지?”
- “너 북한에서 사람 굶어죽은 거 본 적 있어?”
- “너 김정은에게서 그렇게 배웠냐?”
- “북한 간첩은 음식에 독을 넣어서 암살한다며?”
- “너 북한으로 다시 떠난 줄 알았어!”

John Berry의 문화변용(acculturation) 모델





북한에 세워질 교회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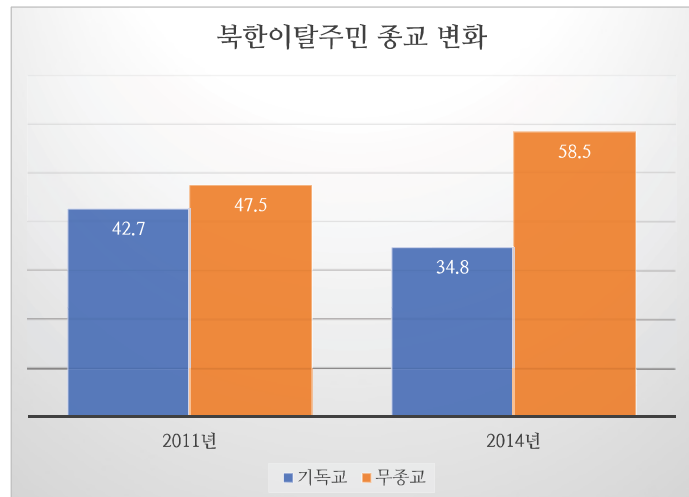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종교 현황

- 기독교 42.7% / 무종교 47.5%

(2011년 통계. 최종응답자 8,299명)

- 기독교 34.8% / 무종교 58.5%

(2014년 통계. (최종응답자 12,77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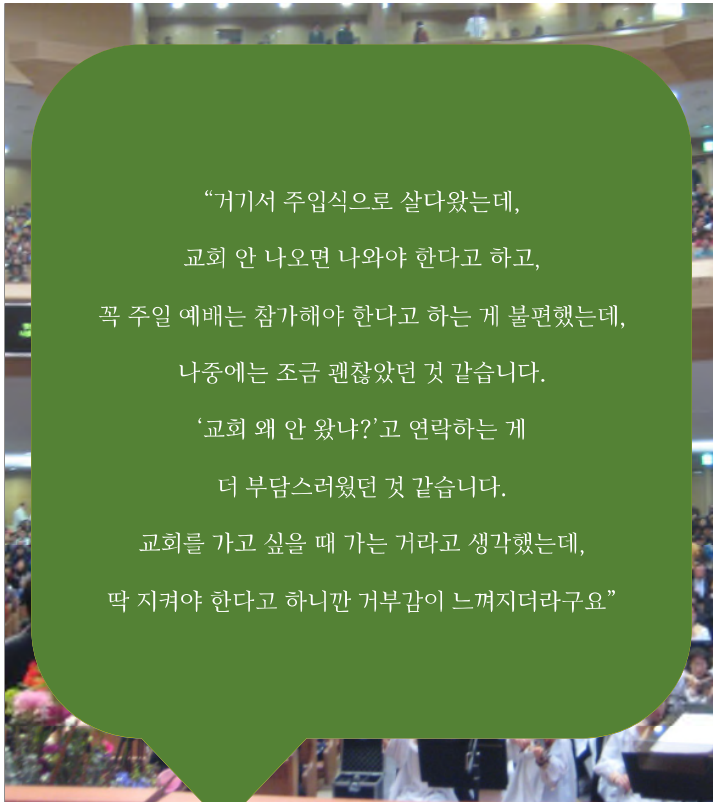


왜 그럴까?

- 환대를 하고 잘 대해주는데 왜 안 될까?
- 돈도 주고 여러모로 챙겨주는데 왜 안 될까?
- 전도해도 왜 잘 안 받아들일까?
- 교회 잘 나오다가 왜 갑자기 그냥 사라질까?

환대하는 한국교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과연 **환대**를 경험하고 있을까?”

‘한국교회의 의도’
vs.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대’



“거기서 주입식으로 살다왔는데,
교회 안 나오면 나와야 한다고 하고,
꼭 주일 예배는 참가해야 한다고 하는 게 불편했는데,
나중에는 조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왜 안 왔냐?’고 연락하는 게
더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을 때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지켜야 한다고 하니깐 거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북한 사회와

비슷해서 드는 거부감

- 또 하나의 조직생활(?)
- 원치 않는 자기 노출
- 지나친 요구와 간섭

북한 사회와

달라서 느끼는 불편함

“가령, 목사님, 탈북자 40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들은 초보 신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북한사회의 사회정치적 모순에서 왔는데,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 할렐루야’ 하는데,
 할렐루야가 뭔지 마시는 건지 먹는 건지 몰라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왜
 생겨났으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를
 체계적으로 납득이 되게 해줘야지.
 그것도 안 하고, 들어오자마자. ‘언제 왔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심방 접수 하고,
 그 다음에 진화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여기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 혁명역사
 들으면 알아요? 모른다구요. 눈 감고 아웅하지 말라.
 북한이나 한국이나 똑같구나.
 이게 욕이 나오더라고요.”

- 재미없고 와닿지 않는 설교
- 대답되지 않는 질문들
- 일방적인 가르침

남한 사회와

다르지 않아서 느끼는 실망감

“교회에 가면 그냥 혼자 앉아 제 마음 속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팔 잡아다가 끌어서
 교회 교단 앞에 무릎 꿇고 앉히는 거예요.
 학수야, 니가 북한에서 이렇게 우상을 믿으며 김일성을
 존중하면서 살아온 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는 굉장히 반감이 생겼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고도 안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거로
 단정지어 버리는 거 있잖아요...
 사실 저는 (김일성을) 믿고 살지도 않았고, 너무 증오했고
 그것에 대한 너무 많은 환멸을 느끼며 살아서
 그게 너무 싫어서 오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저를 이제 막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데 너무 싫었거든요.”

- 높은 기대, 하지만 실망스러운 교회
- 다른 문화를 포용하는 시각의 부재
- “이류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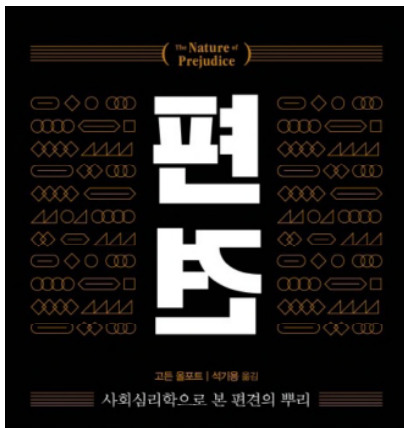
“관계”의 중요성

(북한에서 조직생활에서 빠지면 연락이 와요?)
 “지켜워요. 연락이 오고, 안 오면 집까지 찾아와요. 되게
 뭐라고 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욕하고, 찌르는 거예요.”
 (교회에 빠졌어요. 그럼 연락 안 하는게 나을까요?)
 “그거는 또 말이 안 돼요. 그럼,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그게 편할 지
 모르겠지만, 진짜 상황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저는 오히려 연락 주는 거 좋아해요.”

[북한이탈주민]

“굉장히 공동체에 계시고 싶어 하면서, 공동체에 계시고 싶어
 하지 않는 그분들 내의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소속되고 싶은데, 막상 소속되면
 제재가 들어온다고 느끼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내가 안 가면 안 갈 일이 있나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 받는다는 느낌인 거죠.
 그런데, 계속 안 와서 ‘그냥 안 오시는가 보다 하면’,
 또 관심이 없다고 서운해하시고...
여기서의 모든 키워드는 관계성이죠.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

[남한 사역자]



혐오와 차별의 기원과 메커니즘을 밝힌 현대의 고전

★★★★★

“오늘의 한국 사회를 위해 읽힐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देश자의 현재적 울림이 강렬하다.” 『조선일보』(2014년 10월 20일)

“나에게 수년간 혐오 문제를 연구하면서 가장 큰 영감이 되었던

분위 하나를 고르라면 주저 없이 이 책을 택하겠다.” 『중앙일보』(2014년 10월 20일)

접촉 가설 (Contact Hypothesis)

-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고든 올포트(Gordon Allport, 1897-1967)
 - 1954년에 출간한 『편견: 사회심리학으로 본 편견의 뿌리』
(원제: The Nature of Prejudice)
- ‘접촉’의 중요성
 - “자주 만나면 정든다!” + 접촉의 ‘빈도’보다 ‘밀도’가 중요하다.
- 접촉의 밀도
 - 첫째, 두 집단의 구성원이 동등한 지위에서 접촉할 때(equal status contact) 편견이 감소한다.
 - 둘째, 두 집단의 구성원이 공통의 목표를 추구할 때(pursuit of common goals) 편견이 감소한다.
 - 셋째, 두 집단의 구성원이 협력하여 일할 때(intergroup coordination) 편견이 감소한다.
 - 넷째, 두 집단의 접촉이 제도적 지원(법률, 관습, 지역의 분위기)을 받을 때 편견이 감소한다.

접촉 가설과 북한이탈주민

- 첫째, 탈북민에 대한 지식적인 이해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 “무지는 그 자체로 중요한 편견 유발 요인이다.” 공부해야 한다
- 둘째, 탈북민에 대한 접촉의 경험을 늘려가야 한다
 - 남한 성도와 탈북민 성도가 교회 안의 다양한 영역에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셋째, 친분(acquaintance)을 쌓는 보다 깊은 접촉으로 나아가야 한다
 - 탈북민과 남한 성도 간에 보다 의미 있고 심도 있는 접촉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 넷째, 공통 목표 추구(Pursuit of Common Objectives)로 나아가야 한다
 - 신앙적인 관점에서 남북한을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품어야 한다
- 다섯째, 접촉과 함께 복음으로 변화 받는 것이 필요하다
 - 진정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접촉이어야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지속되는 법이다

북한이탈주민과 관계 맺기

인격화된 복음

있는 모습 그대로의 인정과 기다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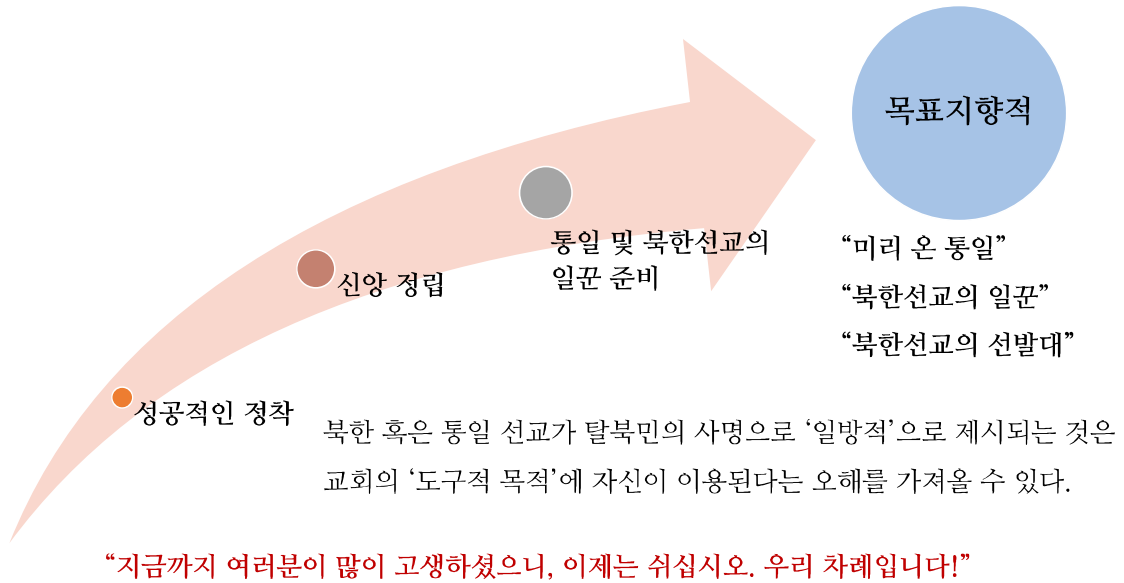
시혜적이기보다는 호혜적인 관계

말에 대한 책임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 되기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영역

북한이탈주민 사역 목표의 전환이 필요하다



환대의 선교

- 선교적인 관점에서 환대의 참 의미
 - 일방적 환대로 안 된다!
-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가?
 - 하나님이 참된 환대를 주시는 분이다.
 -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 우리의 환대는 ‘동행’이다.
 - 선교(宣敎)에 앞서 선교(先交)부터!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환대를 향하여 동행하는 자입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종말론적 삶

- 한국 그리스도인의 역할

- 한국 사회를 더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남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 북한 사람들도 원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통일하고 싶지 않겠는가?

- 한국 교회의 역할

- 한국교회가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품는 따뜻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 그들과 함께 함께 살아가며 우정을 맺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통일 준비이다.
- 교회는 “특권적인 사람이 비특권적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공동체”이다!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2강

인도적 대북협력의 성과와 과제 - 이주성 권사 북한을 오가며 교류했던 북한사람들의 이야기



20여 년간 인도적 대북협력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활동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북한을 오가며 교류했던 북한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현)
-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북한사업실장 (1994 - 2020)
- 민주평통자문위원 보건환경위원회 상임위원(2021 - 현재)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위원 (2021 - 현재)

인도적 대북협력 성과와 과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 주 성

저는?



-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주성 입니다.
- ◆ 월드비전에서 9,689일 (1994.2~2020.8) 근무했습니다.
- ◆ 북한을 100여 번 다녀왔습니다.
- ◆ 평양, 백두산, 대흥단, 함흥, 정주, 안주, 개천, 숙천, 배천, 신의주, 사리원, 원산 등 북한의 자강도, 함경북도를 제외한 지역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Contents

1. 남북 교류협력 환경
2. 북 인도주의 상황
3. 인도적 대북협력 단체 활동
 - 성과와 한계
 - 가로막는 장벽
 - 활성화 방안
4. 함께 생각해 보기

남북 교류협력 환경

- 북한은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개최해 대북 적대시정책을 이유로 '신뢰구축조치들의 전면 재고 및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의 재가동' 문제를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 [2022년 1월]
 - 신뢰구축조치 8 잠정 중단했던 모든 활동 ?
 - *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 결정사항 [2018. 4. 21]
 - *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 중지
 - * 북부 핵시험장 폐기
 - * 핵무기와 핵기술 이전 금지 등
 - 북미관계 고착의 장기화, 대북제재 등을 타개하기 위한 강경책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창의적 돌파구 마련 제기
- 북중 국경 봉쇄 24개월 만에 북중 화물열차 운행 재개[2022. 1. 16]
 - 월 500량 화물칸 운송 계획 [중국 단동 - 북한 신의주]
 - 북한 당국 승인 물자 우선 수송
 - 당분간 민간교류물자 수송은 제한적일 가능성

남북 교류협력 환경

○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입장

- 비 본질적 문제로 치부
-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우리 식대로 해결해 나갈 것' (리일환 노동당 비서, 2021 9. 9)
- 해외교포 단체에 '남한의 돈, 사람, 물건' 이 연계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요청
- 3자 또는 2중 합의에 의한 사업도 비공개, 비보도 요청
- 북한 무역법 개정으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물자 통제 개연성

○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구도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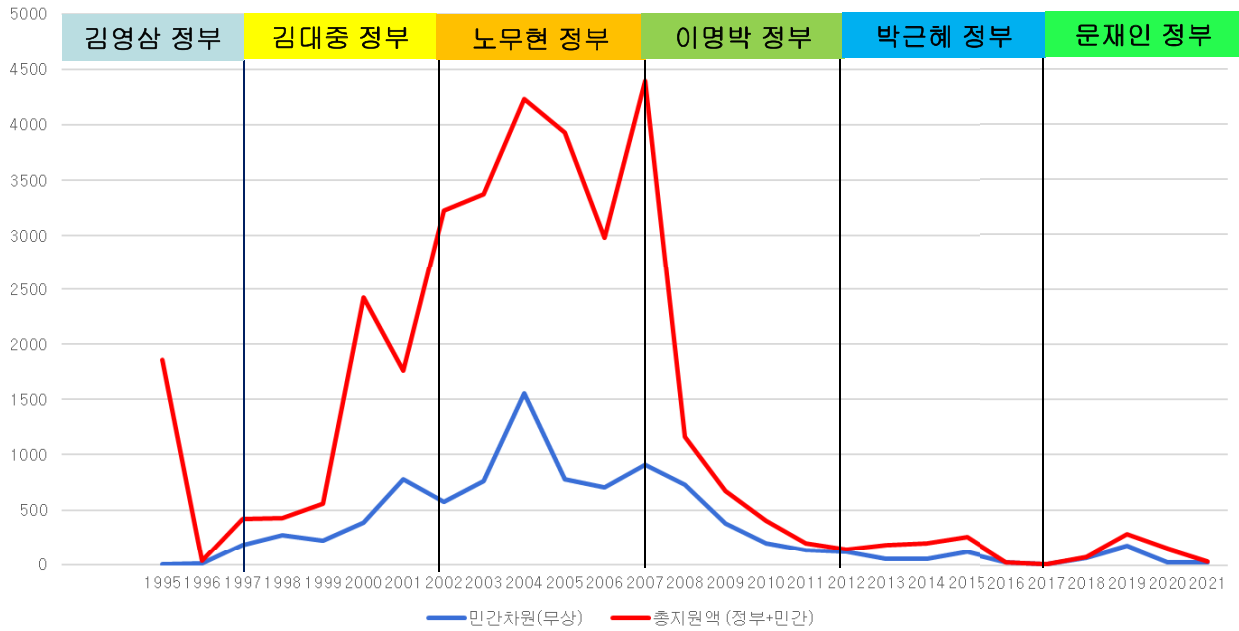
북 인도주의 상황

대북인도적 지원 현황 (1995 ~ 2021)

구분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총액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정부 차원	영국차원(a)	1,854				339	944	684	832	811	949	1,221	2,000	1,428		183									12				11,258
	민간단체기금 지원(b)						34	63	65	81	102	120	133	220	241	77	21					23	1			7	5	1,192	
	국제기구 등을 통한 지원(c)		24	240	154			229	243	205	262	19	139	335	197	217		65	23	133	141	117	1			106	118	2,969	
	지원액 A(a+b+c)	1,854	24	240	154	339	978	976	1,140	1,097	1,313	1,360	2,272	1,983	438	294	204	65	23	133	141	140	2		12	106	125	5	15,419
	식량차관 B						1,057		1,510	1,510	1,359	1,787		1,505															8,728
	지원액 A+B	1,854	24	240	154	339	2,035	976	2,650	2,607	2,672	3,147	2,272	3,488	438	294	204	65	23	133	141	140	2		12	106	125	5	24,147
민간차원(무상) C	2	12	182	275	223	386	782	578	766	1,558	780	709	909	726	377	201	131	118	51	54	114	28	11	65	170	23	26	9,258	
총지원액 A+B+C	1,856	36	422	429	562	2,421	1,758	3,228	3,373	4,230	3,927	2,981	4,397	1,164	671	405	196	141	184	195	254	30	11	77	276	148	31	33,403	

북 인도주의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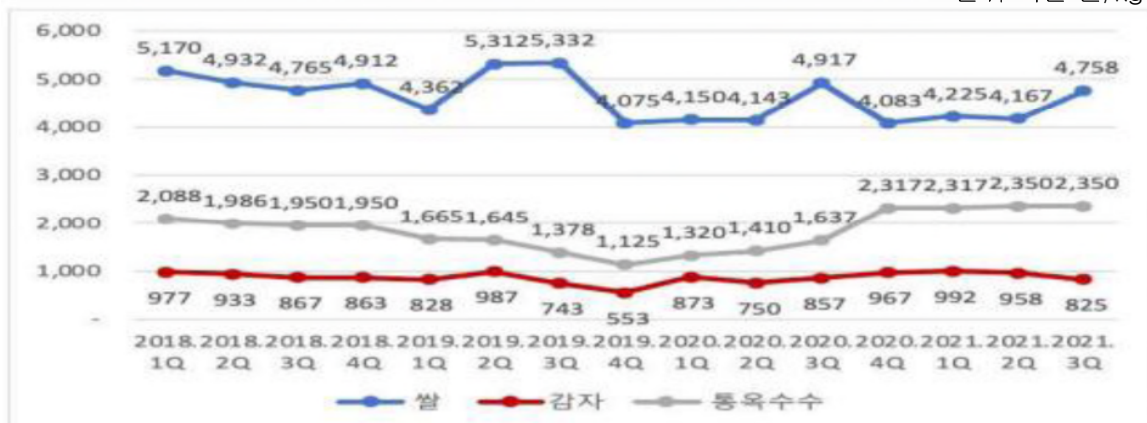
대북인도적 지원 현황 (1995 ~ 2021)



북 인도주의 상황

곡물 가격 추이

단위:북한 원/kg



출처 : 최은주(세종연구소, 2022)

- 곡물가격은 코로나19 시기에도 비교적 안정세 유지
- 대체 곡물인 옥수수의 경우 쌀 가격 상승에 따라 가격 변동
 - * 밀가루 등 수입원료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요 증가 기인

북 인도주의 상황

○ 식량수급 상황

- 북한 식량 공급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함 (2018~2021).
 - 2018년은 대북 제재의 여파와 기상요인 가뭄 이상고온으로 감소 (455만 톤)
 - 2019년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일시적으로 생산 호조 (464만 톤)
 - 2020년은 제재, 수해, 코로나 등 3 중고로 인해 식량공급 감소 (440만 톤)
 - 2021년은 기상 양호, 태풍피해 없어 2020년 대비 29만 톤 증산 [469만 톤]

북한의 곡물생산량(2018~2021)

(단위 : 만톤)

연도	생산량	쌀	옥수수	서류	맥류	누류	잡곡
2018년	455	220	150	54	15	14	2
2019년	464	224	152	57	15	14	2
2020년	440	202	151	54	16	15	2
2021년	469	216	159	57	16	19	2

자료 : 농촌진흥청 (2018. 12. 18 ~ 2021. 12. 17)

북 인도주의 상황

수입식품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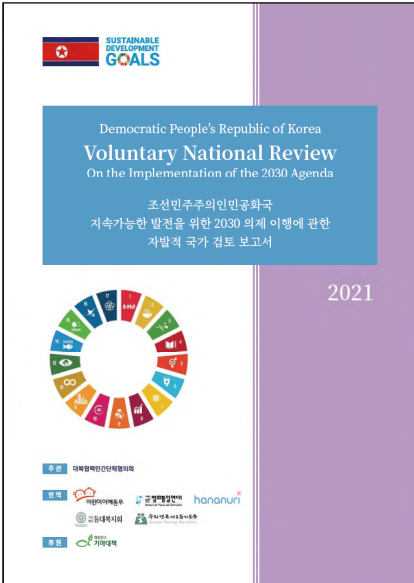
단위:북한 원



출처 : 최은주(세종연구소, 2022)

- 코로나 시기 수입량 급락에 전반적 급등
- 수입에 의존하는 설탕 등의 식자재 가격
- 북한의 밀가루, 콩기름, 설탕 등에 대한 지원 요청 증가

북 인도주의 상황 _ 북한 VN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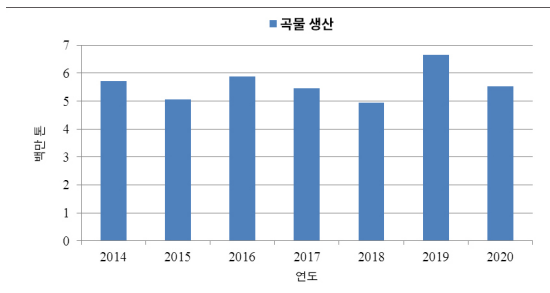


- 17개의 SDGs 개발목표, 95개의 대상, 132개의 성과지표 제시
- SDGs 이행 장애물로 대북제재, 자연재해, 코로나 19 지적함
- 북한은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시스템('National Statistics)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힘.
 - ※ 이는 개발목표의 추진에 있어서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성과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뜻.
- 북한이 이러한 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양자/다자간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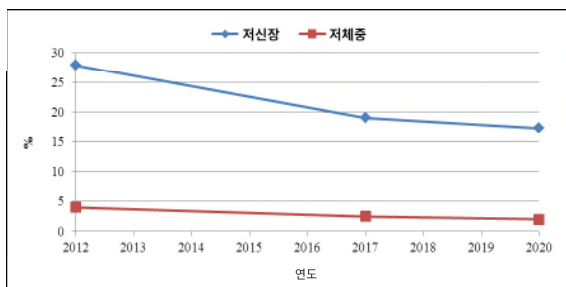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 2015년 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현황 및 전략, 그리고 추진체계를 UN에 보고하는 문서(2015년 제70차 유엔총회 결의)

북 인도주의 상황 _ 북한 VN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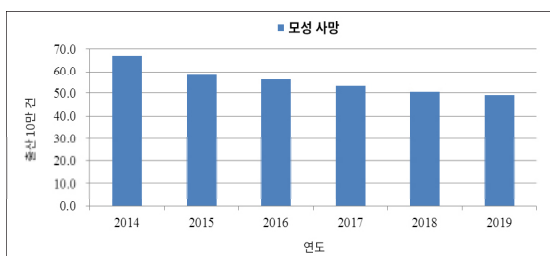
연도별 곡물생산량(만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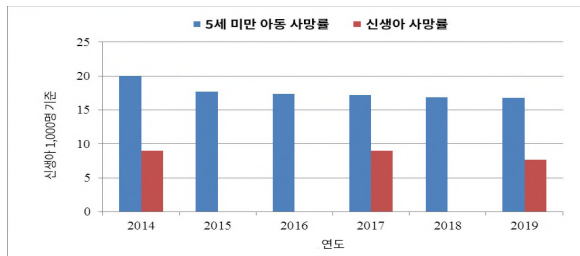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실조 비율(%)



출산 10만 건 당 모성 사망자 수



신생아 및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북한의 인도적 상황 - 북한 VNR

남북한 간 주요 건강지표비교 (통계청 자료 참조)

- 모성사망비율 (100,000명 기준)
북한 82명(2015년) , 한국 7.8명 (2017년) 약 11배 추정
- 5세 미만 아동사망률 (1.000명 기준/2017년)
북한 19명, 한국 3.3명
- 영아사망률 (1000명 기준 / 2017년)
북한14.4명, 한국 2.8명
- 신생아 사망률 (1000명 기준 / 2017년)
북한 10명, 한국 1.5명

북 인도주의 상황 - 북한 VNR

SDGs 17개 목표 중 빈곤, 환경, 기후변화에 집중 예상

정치적인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할 목표(교육, 성평등, 평화, 정의, 제도) 보다는 국제사회와 실용적 협력 가능한 목표 집중

- SDG 2 : 기아 종식과 식량안보
- SDG 11 :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형성
- SDG 13 : 기후변화 대응
- SDG 17 : SDGs 이행을 위한 파트너십

빈곤, 환경, 기후변화, 식수 등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을 덜 받고 추진할 수 있음 , 최근 북한도 환경보호, 기후변화 이슈에 적극적인 관심 표명

사례1

당곡리 협동농장 현대화 사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경기도

당곡리 협동농장 현대화 사업

◦지 역 :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협동농장)

◦면 적 : 700ha

(210만평, 여의도의 약 2.4배)

◦농경지 : 600ha (전체면적의 86%)

(논 350ha 58%, 밭 250ha),

◦농장 세대수 / 인구수 : 750세대,

3,000여명 / 4,000여명

◦위 치 : 평양-개성간 고속도로 남쪽으로

약 20km 부근



사업장 위치도 <2006년>

남측 사업수행자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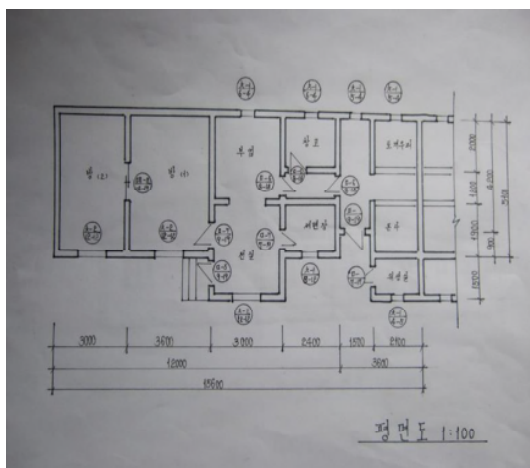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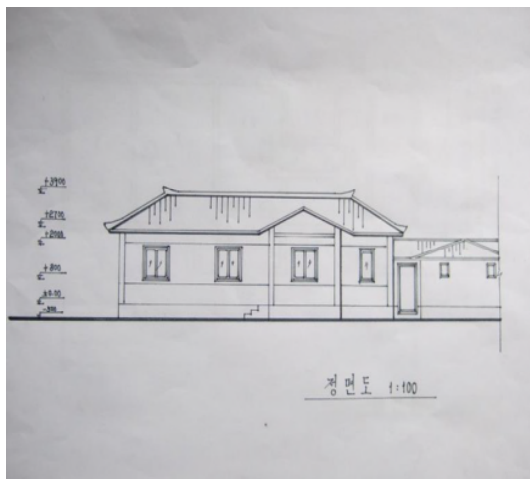
지자체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획, 사업협의를, 기금지원 . 사업협의를, 물자선정, 도내 전문가 지원, . 도청 내 담당 공무원 파견(주택, 도로, 보건, 농정)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획, 사업협의를, 사업시행
통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북 및 물자반출 허가
경기도농업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분야 사업수행 (벼농사협력, 채소협력, 농업기술협력, 농업물자)
분야별 전문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설계, 병원 탁아소 신축건물 건축과 물자산정, . 비닐은실, 도정공장, 농기계수리소, 콩우유가공 공장 설치와 물자산정, 직원 및 기술진 파견 . 농업용 관정 물자산정 / .포장도로 설계

북측 사업수행자의 역할

민족화해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조정(강남군, 협동농장내부 사업수행부분) . 남측과 사업조정, 사업현장관리 . 남측 인원초청 실무처리, 방문자 안내
강남군 인민위원회, 강남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자 행정처리, 물자수송, 기술인력지원, 현장 실무협의 . 농업협력사업 관리 . 주요 시설건축 사업 관리 및 시행, 감독
당곡리 협동농장 관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자수송, 농장내 사업수행, 인력배치, . 사업 수행, 물자관리

사업계획(2006~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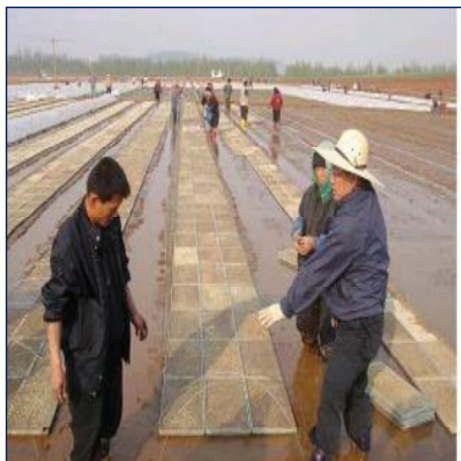
연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추진 방향	벼농사 및 주민복지 기반구축에 집중투자	벼농사 및 주민복지 사업 확대	남북협력 농촌현대화 사업 마무리
농업 생산 분야	.벼농사협력사업 100ha .농자재/비료 등 지원	.벼농사협력사업200ha .농자재/비료 등 지원	.벼농사협력사업(200ha) .농자재/비료 등 지원
	.시설채소협력사업(1ha) .비닐온실 설치 .채소재배 5종	.시설채소협력사업 .채소재배 5종	.시설채소협력사업 .채소재배 5종
농업 기반 조성 분야	.농로 및 진입로포장 .중장비, 운송장비 지원 .농업용 관정개발 .도정공장 및 창고신축 자재 지원 / 농기계지원	.도정공장 및 창고 .농기계 정비기술 지원 .농기계 부품 지원 .농기계수리소 건립	.농기계 정비기술 지원 .농기계 부품 지원 .각종 시설 부품 지원
주민 복지 분야	.주택 개보수 .소학교 보수 .의약품 지원	.유치원 보수 / .탁아소 신축 .인민병원 신축 / .의약품 지원 .주택신축 지원	.의약품 지원 .콩우유 생산공장 .지원조직 결성



주택 신축



농업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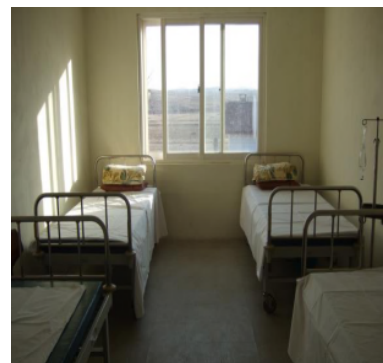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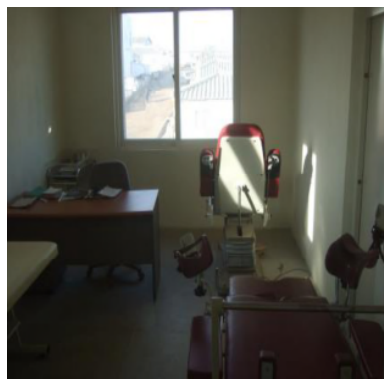
도로포장



소학교



당곡리 인민병원



탁아소



STORY 1



우리 농장 물건 좀
찾아 주시라요!!

STORY 2



우리 농장에도
남쪽 사람 좀 보내주십시요!!

사례2 지식공유사업 (농업중심)

월드비전

남북농업과학심포지엄 (2001-현재)

- 개요 : 남북의 농업 전문가들이 모여 사업을 평가하고 인적 교류 증진 도모
- 참석인원 : 남측 274명, 북측 154명 참석 (연인원 기준)
- 의 미 : 가장 오래 지속된 남북교류협력사업 (2001~ 2015 총 14회 개최)



* 14차 심포지엄은 2015. 12. 9 평양에서 진행

북한농학지역량강화사업 (2008-현재)

- 개요 : 북한 농업 연수단이 제3국에 2년간 체류하며 채소채종기술 훈련 이수
- 대상 : 1기(4명, 2008~2009) 2기(5명, 2010~2011)
3기(6명, 2012~2013) 4기(6명, 2014~현재)



사업내용

사업목표

- 북한 농학자들에게 **한국의 선진농법 전수** (이론/실습)
- 증산을 위한 **채소 신품종 육성** (식량문제/영양불균형 해소)
- 북한 연수단에 의한 **선진농법 실용화 및 후대 양성**
- 농업을 통한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

세부사업내용 I



북한농학자 선발 (북측)

- 실무경험있는 농학자
- 각 작물별 전문가 1인
- 건강이 양호한 자



북한농학자 개별 인터뷰

- 가족, 건강 상태 확인
- 전공분야 / 연구실적
- 장래 희망



개별(분야) 목표합의

- 2년간 개인별 목표합의
- 목표에 따른 사업계획 (실습 / 강의 일정) 합의



개강식



실습장 재정비

- 태양열 온실 1동
- 비닐온실 5동
- 노지 400평



물자지원

- 실습 종자 지원
- 연구 기자재 지원
- 생활필수품 지원



이론교육

- 종자 채종, 육종, 보관
- 재배법/시설물 관리 등
- 월 6 강좌



실습교육/현장참관

- 신품종 육종
- 선진 농법 전수
- 20여개 작물 재배(년)



평가 및 종강식

- 실습 종자 지원
- 연구 기자재 지원
- 생활필수품 지원



북 성과 보고

- 귀국한 연수단원의 연구결과 및 북한 농업에 미친 영향
- 연구진행시 제기되는 문제
- 연수단원들의 역할 등

* 남북농업과학심포지엄에서 발표

현장방문 및 향후 계획 논의

- 북한을 방문하여 연수단 성과 확인
-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
- 차기년도 사업 협의 등

STORY 3

이곳에 핀 감자꽃 한 송이 한 송이는 후원자 여러분의 정성으로 핀 꽃들입니다. 감사합니다.



STORY 4

비용? 손실?



STORY 5



이 술을 박사선생 묘에 나 대신
부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인도적 대북협력의 성과와 한계

인도적 대북협력 단체 활동 - 성과

1. 분단 이후 민간이 중심이 된 첫 남북 간 접촉
2. 활동 성과 기반한 접촉의 형태와 범위 확산 (단순 → 개발)
*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원칙
3. 거버넌스적 특징을 갖음 (정부+시민사회+기업)
4. 실질적인 평화 / 통일관련 활동
(이념 → 사회운동 / 실천)
5.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참여 확대

인도적 대북협력 단체 활동 - 한계

1. 남북관계 및 남북한의 정책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
(통일의 대상, 주적, 안보위협, 남남갈등...)
2. 사업의 효과성, 분배투명성, 지원 적정성 측정 한계
3. 민간의 자율성 및 독립성 미흡
4. 국민적 지지기반 확보 미흡(사회통일운동 저조)

인도적 대북협력의 방향과 장벽

인도적 대북협력 단체 활동 - 방향

○ '대북 인도지원 · 개발협력' 의 방향

□ 일방적인 대북지원을 넘어 **'상호성'** 을 갖는 대북협력

- 9.19 평양공동선언 : 상호 호혜와 공리공영의 원칙

“ 남과 북은 상호 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인도적 대북협력 25여 년, 일방적인 대북협력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을 해소하는 방안

인도적 대북협력 단체 활동 - 방향

□ 장기적이고 **'지속가능성'** 을 갖는 대북협력

- 지속가능성은 상호 신뢰를 형성, 유지할 때 전제되어야 하는 기본 요소

- 남북관계에 따른 이유로 남북교류가 중단되는 경우 대북협력의 분배투명성 확보와 사업 효과성 측정에 한계가 있음

□ 다양한 주체와의 연대를 통한 **'포괄적 부문별 접근 방식'** 도입

- 프로그램 단위의 계획을 통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 도모

- 부문별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함

- 민-민, 민-관, 민-지자체 등의 다양한 연대를 통한 동력확보

- 국제사회의 아젠다 (SDGs, 기후변화 등) 연계

인도적 대북협력 단체 활동 - 방향

- 북한의 자생력 증진에 기여하는 **‘개발협력’** 전환
 - 유엔 ‘2017-2021 UN전략계획’
“북한이 개발역량을 강화하여 인도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대북지원 전략이자 목적” 명시
 - 북의 ‘경제협력을 염두해 둔 개발협력’ 으로의 전환 요청(2015)
 - 긴급구호, 복구사업은 임기응변적인 성격이 강함. 북한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통한 자생력 제고를 위해 개발협력 방식 전환 불가피

인도적 대북협력 단체 활동 - 가로막는 장벽

- **대북 인도지원 · 개발협력’ 을 가로막는 장벽**
 - **남북의 정책과 제도 변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
 - 인도적 대북협력의 지속성, 안정성 보장 법률 제정 소극적
 - **북한의 원조행정 시스템의 문제점**
 - 원조 행정의 이원화 [**국제규범 vs 내부자 거래**]
 - * 국제사회와 남한의 원조를 이원적으로 관리
 - 관리 · 감독과 실행의 이원화 [**시행사 vs 시공사**]
 - * 창구를 맡은 북한 기관은 시행사, 병원 및 협동농장 등은 시공사
 - 시행사의 권한과 역할이 너무 강함
 - 시공사는 독립성과 자율성 갖지 못함

인도적 대북협력 단체 활동 - 가로막는 장벽

□ 남한의 체계적인 개발협력 추진 체계 부족

- 독립적인 인도적 대북협력 정책의 부재
 - * 정권에 따른 대북협력 정책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 * 대북지원을 대북협상의 수단이라는 도구적 관점에서 인식
 - * 개발협력의 지속성, 장기성을 보장할 법, 제도 부재

□ 정부와 사업 주체(민간, 지자체) 간 협력 플랫폼 부족

- ‘민관정책협의회’의 상시화, 민-지자체와의 소통구조 부재
 - * ‘남북교류협력단(가칭)’ 설립에 미흡적 대응
- 민과 관은 경쟁자, 통제대상자가 아닌 동등한 행위자라는 파트너 의식 부족
- 개발협력을 수행할 주체자의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 강화 노력 필요

인도적 대북협력 단체 활동 - 가로막는 장벽

□ 대북협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부족

- 통일철학의 부재로 인한 대국민적 메시지에 혼란 야기
- 대북지원사업의 필요성, 효과성을 홍보하는 노력 부족

□ 대북인식과 남남갈등 지속

- 대북인식 차이에 따른 남남갈등은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갖지 못하게 함
- 남남갈등 문제는 역사와 통일, 남북한 및 동북아 평화에 대한 인식 등 다양
- 사회적 대화의 노력에도 단시일 내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문제

인도적 대북협력 단체 활동 - 가로막는 장벽

- **‘인도적 대북협력’ 의 걸림돌이 된 대북제재**
 - 국내외 대북협력 단체의 동력 상실
 - * 대북제재로 사업 축소 및 중단 등으로 인한 재원확보 어려움
 - * ‘송금 제한’ 으로 제재 대상 아닌 사업도 추진 한계가 있음
 - 지속 가능한 개발협력사업 중단
 - 북한 파트너와의 신뢰 관계 약화
 - * 대북제재는 북한 관계자들과의 협력이 제한되고, 협력의 범위와 규모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파트너십이 위협받고 있음

인도적 대북협력 단체 활동 - 가로막는 장벽

UN의 대북 경제제재 주요 내용(2016년 이후)

	2270호 [2016. 3. 2]	2321호 [2016. 11. 30]	2371호 [2017. 8. 5]	2375호 [2017. 9. 11]	2397호 [2017. 12. 22]
제재 배경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6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북한의 수출	- 석탄, 철, 철광석 수출 금지(민생용은 예외)	- 석탄 수출 연 4억 달러 상한 - 기타 주요 광산물 수출 금지	- 석탄, 철, 철광석 등 광산물 수출 전면 금지 - 수산물 수출금지	- 섬유제품 수출 금지	- 식용품, 농산물, 목재, 토석류, 선박, 기계, 전자기기 등 수출 금지
북한의 수입	- 항공유 금지(인도주의용 및 민항기 해외금융 제외)			- 원유 도입량 동결(연 400만 배럴) - 석유 정제품 도입 제한(연200만 배럴)	- 석유 정제품 도입 제한(연 50만 배럴) -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 금속 수입 금지
금 용	- 북한내 외국금융기관 및 북한금융기관의 해외지점 폐쇄 및 거래금지	- 북한과 무역 위한 공적·사적금융 지원 금지			

인도적 대북협력 단체 활동 - 가로막는 장벽

대북인도지원 분야별 유엔제재품목

분야	식량/영양	공공보건	식수 위생	공통
제재 품목	농업용 삽, 호미, 가래, 분사기, 원예용 칼날, 쟁기, 삽, 수확기, 탈곡기, 트랙터, 온실, 축사 등	손톱깎기, 의료용 소독기, 장애인 이동장비, 인공호흡기, 수술용 기구, 앰블런스, 초음파 장비, 병원용 침대 등	금속 물탱기, 펌프, 온수기, 정수기, 금속관, 파이프 및 연결 장치 등	지붕용 자재, 나사·볼트, 알루미늄 호일, 가위, 종이클립, 스테이플러, 냉동기, 태양전지판 등

인도적 대북협력의 활성화 방안

인도적 대북협력 단체 활동 - 활성화

○ 인도적 대북협력 단체 활동 - 활성화

□ 인도적 대북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 한국 내 '대북 인도지원·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대북교류 추진되도록 법 제정
 - * 남북인도적협력재단(가칭) 을 설립하여 남북협력기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상시로 집행하도록 함

□ 인도적 대북협력에 대한 대북제재 개선

-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에 일괄 면제가 필요함.
- 만약, 단계적 추진 시 제재 면제 품목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작성
- 민간 단체가 활동하는 국가에 제재 면제 권한 부여할 것
- 인도적 대북지원 활동을 위한 송금 채널 확보

인도적 대북협력 단체 활동 - 활성화

□ 대북협력 단체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

- 국제사회의 아젠다 (SDGs, 기후변화 등) 연계 프로그램 구상
 - * 기후변화와 SDGs는 식량안보, 보건의료, 농업협력, 환경산림과 밀접하게 연동되어진 아젠다, 국제사회 내 보편적 교류협력의 원칙에 근거하여 남북한 교류협력 범위의 확대 및 사업 추진의 명분이 됨
 - * 북한은 '기후변화문제' 를 국제사회와 공동대응하기 위해 파리협정을 비준하고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8% 감축과 국제사회가 지원할 경우 32.25%를 더 감축하겠다고 선언함
 - * 북한은 2016년 유엔과 '유엔전략계획 2017-2021' 에 합의하고, 4대목표 [▲식량과 영양안보 ▲사회개발 서비스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데이터와 개발관리]를 설정하고 경제발전계획과 SDGs를 연동시켜 적극적인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의지를 표함

인도적 대북협력 단체 활동 - 활성화

□ **대북협력단체의 재원의 안정성 확보**

- 정부 대북지원품목(쌀, 비료)에 대해 정시성, 정량성을 확정하고, 일정부분 민간에 위탁 지원하도록 제도화
- 민간 차원의 투명성, 사업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하여 자정 능력을 함양하도록 함
- 민간과 지자체 간 정보 공유 및 연대를 모색할 창구 개설

□ **차세대 평화·통일 활동가 양성**

- 남북관계에서 현장을 경험하며 한반도 구성원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협력하고 장기적으로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미래세대를 양성할 재정과 시스템 확보해야
[청년 일자리 창출 인턴제 실시]

인도적 대북협력 단체 활동 - 활성화

□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

- 개발협력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의 논리로 전달
-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대북개발협력 사업 추진
- 대북제재에 대한 우려 및 개선에 대한 옹호활동 연대

□ **‘포괄적 부문별 접근’ 을 실행하기 위한 연대 강화**

- 민간단체 간 컨소시엄을 통한 대규모 단지 내 개발협력 추진
- 프로그램 단위의 계획을 통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 도모
- 다양한 주체 간 협력,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갖음
[민-관, 민-지자체, 민-민, 민-기업 등]

인도적 대북협력 단체 활동 - 활성화

□ 평화공감대 확산

- 민간이 주도하는 통일과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평화공감대 활동 필요
-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시민사회단체 간 '사회적 대화' 필요
- '사회적 대화'가 반영된 대북정책 구현, 여야 정치권의 협력 유도
 - * '남북 인도적 협력법' 제정 관련 여야, 보수 진보 시민사회단체의 '사회적 대화' 계획
- 25년 간의 인도적 대북협력 현장의 스토리를 발굴하고 이를 평화교육 자료로 활용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하는 교육 콘텐츠 개발
- 국제사회 평화운동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한 옹호활동 전개

함께 생각해 보기

- 팩트 vs 자기견해
- 인도적 지원 vs 정치적 사업
- 신뢰가 전제 vs 신뢰가 목적
- 북을 믿을 수 있나? vs 북은 남을 믿을까?

The background of the slide is a gradient of blue, transitioning from a darker shade at the top to a lighter shade at the bottom. Overlaid on this background are several white, semi-transparent circles of varying sizes and thin white lines that intersect to form a network-like pattern, suggesting connectivity or a global theme.

감사합니다

3강

북한 이해 - 송혜연 목사

북한에 대해 북한에서 이사 온 분을 통해,
북한을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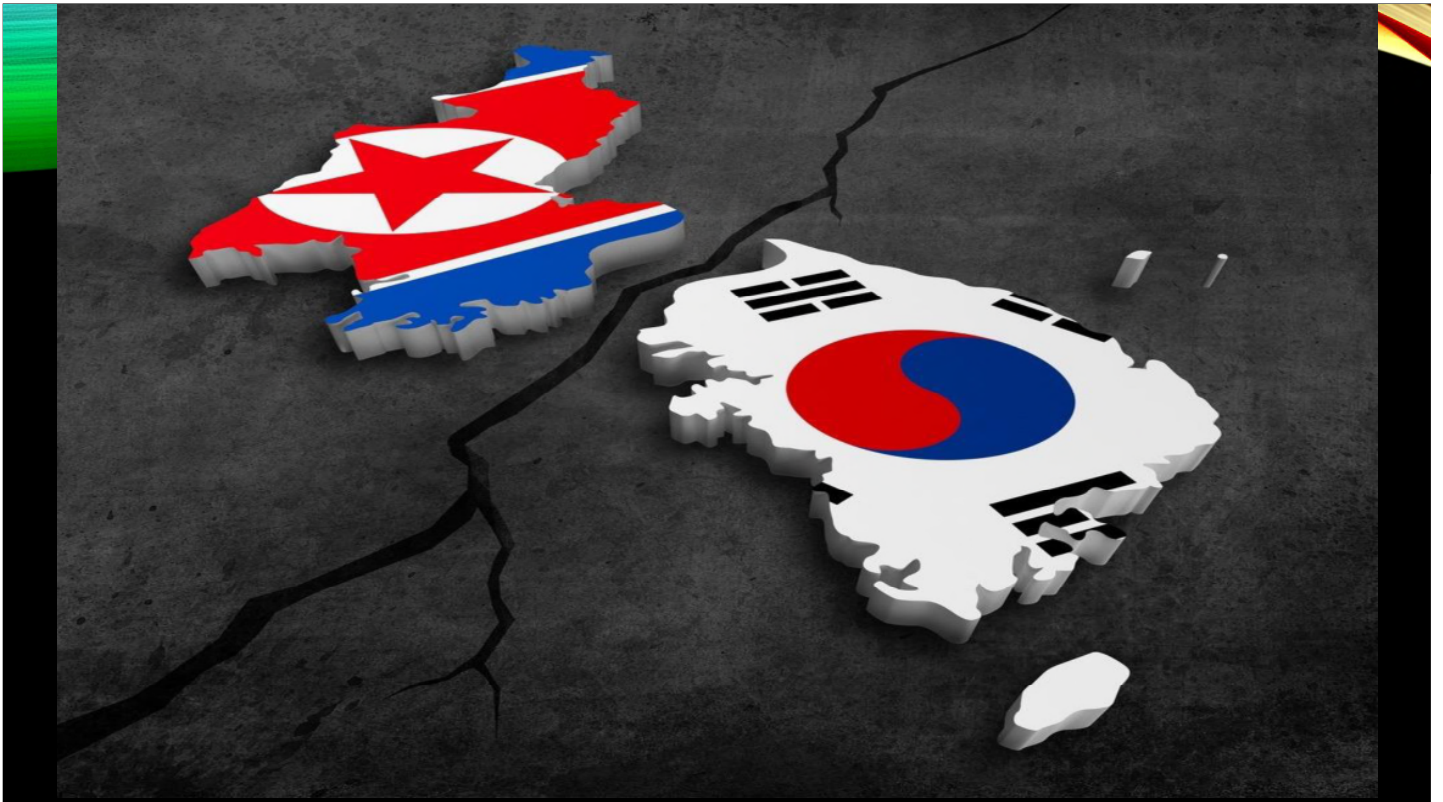


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남한교회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 북한을 여셔서 3만명의 탈북민들을 대한민국에 부르셨습니다. 탈북민들을 통해 남한교회에게 통일예행연습을 미리 시키고 계십니다. 남과 북의 신앙으로 준비된 성도들이 연합하여 이 시대적 사명인 이 민족의 하나 됨을 이루시기 위해 특별히 안성교회에 제2회 평화통일학교가 진행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 좀 더 북한을 이해하고 탈북민들을 이해하여 시대적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2005년 대한민국 입국
- 2013년 장로회신학대학원 졸업
- 2020 송실대학원 기독교통일지도자학 석박사 수료
- 북한기독교총연합회 감사 (현)
- 하나로드림교회 담임목사 (현)

북한이해

송혜연목사



북한 헌법 제 1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국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체사상



십계명

제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삼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오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육은, 살인하지 말라.

제칠은, 간음하지 말라.

제팔은, 도둑질하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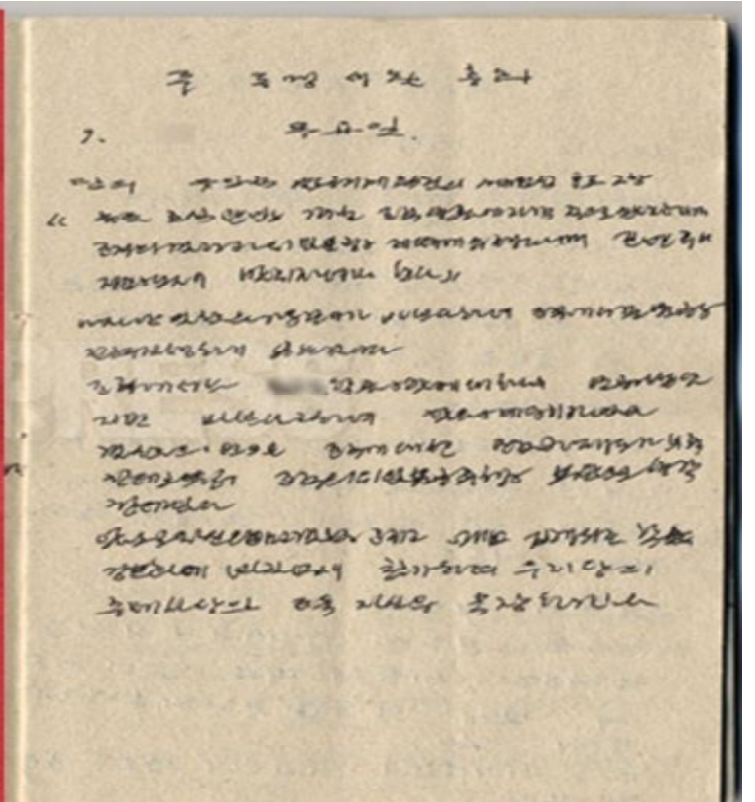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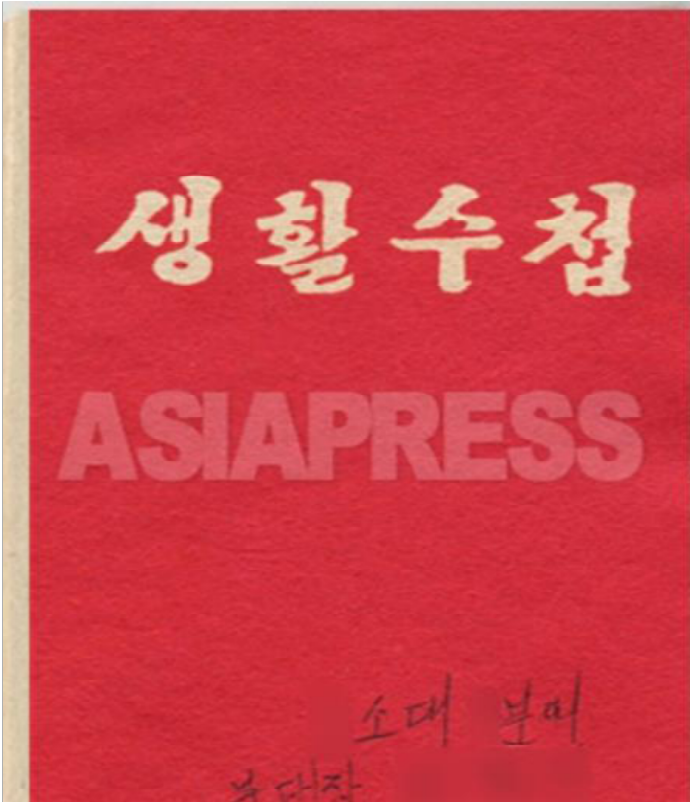
제구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십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북한 주민을 지배하는 '유일사상 10대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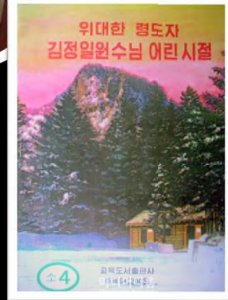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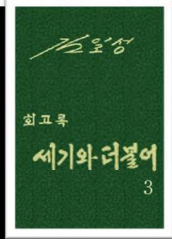
-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결단을 강화하여야 한다.
- 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 배워 공산주의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 방법, 인민적 사업 작품을 소유하여야 한다.
-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여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해 나가야 한다.

자료: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2



교육

우상숭배 세뇌 교육



증오 교육

그러자 이번에는 허시몬놈이 명섭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놈은 명섭이를 나무에 꽂꽂고 놓아놓고 정강수로 이어에 《도끼》이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정강수랑술이 지이제 담을 때이다 뿌적뿌적 살이 파들어갔습니다. 명섭이는 한량동안 몸부림치다가 그만 쓰러지고말았습니다.



얼마뒤 이 소식을 듣고 명섭이의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명섭아!》 어머니는 명섭이를 부르며 목놓아울었습니다. 명섭이의 의미에서는 별건 피가 흘리태었고 얼굴은 흉통 부어있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분반 마음을 참을수 없었습니다. 《이제승냥이놈을 때려부시지!》

마을사람들은 도끼와 몽둥이를 들고 허시몬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제놈의 집에 숨어 제놈을 찾아내어 그 자리에서 처죽이고말았습니다.

【말하기교과】

제 27 과 형님이 온 날

인민군대에 나간 열 집에 환승입니다. 어머니가 영수에게 《영수야, 이제 곧 알려줘라. 그뵈구 누나네 집에 들러서 식구들 데려. 저덕은 집에 와서 《어머니, 갔다오셨어 영수는 말걸음도 가갔습니다.》

《누나!》 《영수르구나. 어쩔 《어머니가 보내서 《네, 집에 무슨 일 《명님이 표창장을



주민 통제 시스템

소속 직장을 통한 통제

- 남성과 결혼 전 여성 의무적
- 회사 담당 보위원 & 보안원
- 조직생활(노동당, 청년조직, 직맹 또는 농근맹)



인민반을 통한 통제

- 2~30세대로 구성
- 담당 보위원 & 보안원
- 조직생활(노동당 및 여맹)





북한 속의 시장경제
장마당



남한 영상물, 음악 시청



휴대전화와 라디오를 통한 정보 유입



남한에 대한 동경

- * 외교관들을 비롯한 고위층 탈북
- * 해외 노동자들 탈북
- * 탈북민 가족, 북한주민들



개인의 삶 중시



새로운 세대들





01
who

- 두번의 목숨을 건 사람들
- 한국교회에 보내신 선물들
- 남과북의 하나됨을 위한 마중물

02
when

북한의 고난의 행군

1995년~2003년 까지 고난의 행군
2003~2008년 까지 고난의 강행군
2008~2012년 강성대국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



대한민국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

03

where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재사회화를 연구한 탈북민박사 북한에서 주입 받았던 혁명사상이 **대한민국에 와서 얼마나 바뀌었는가**에 대해 연구. 결론은 그들의 사고방식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정보가 머리에 입력돼 분석돼 나오는 매커니즘이 남쪽에 왔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북에서 입력된 **프로그램은 타협이 없는 '타도정신'**. 미제를 타도하고 혁명의 원수를 타도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음.. 한국에 오니 **미제의 자리가 김정은으로 바뀌었을 뿐**. 대화하고 타협할 줄을 잘 모르고, 타도할 대상, 투쟁할 대상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

출처 : dongA.com

04

what

한국교회의 북한을 향한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이 들으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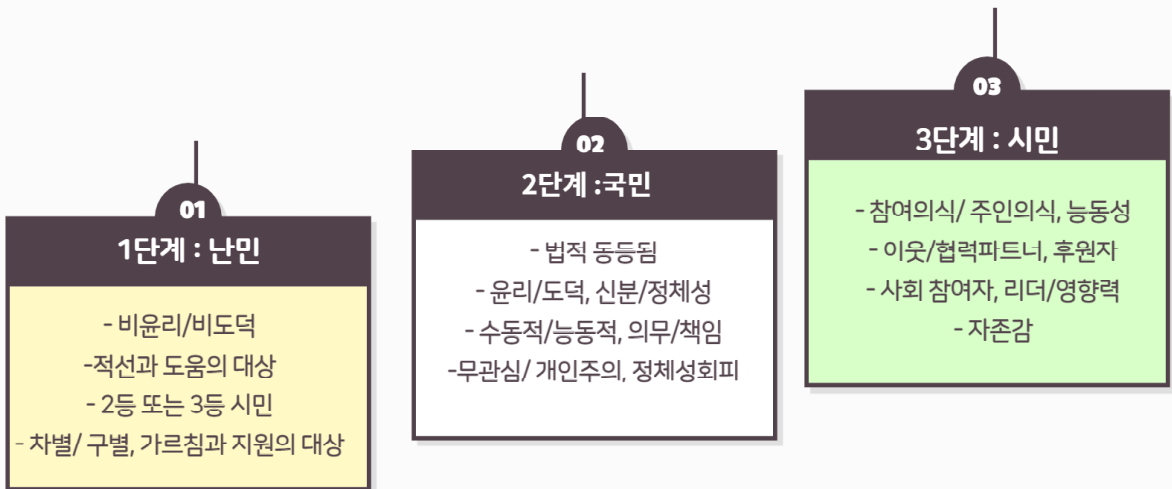
- 우리방황하는 탈북민들을 도운 한국교회
- 말씀으로 양육받고 복음듣고 북한가다.
- 3만 3천여명의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옴
- 탈북민들에게 사명을 심어주고 세워주어야...

05
how

하나님이 직접 뽑으신 탈북민들을 전도 하고 선교의 동력으로 준비시켜야...



탐북민을 대하는 3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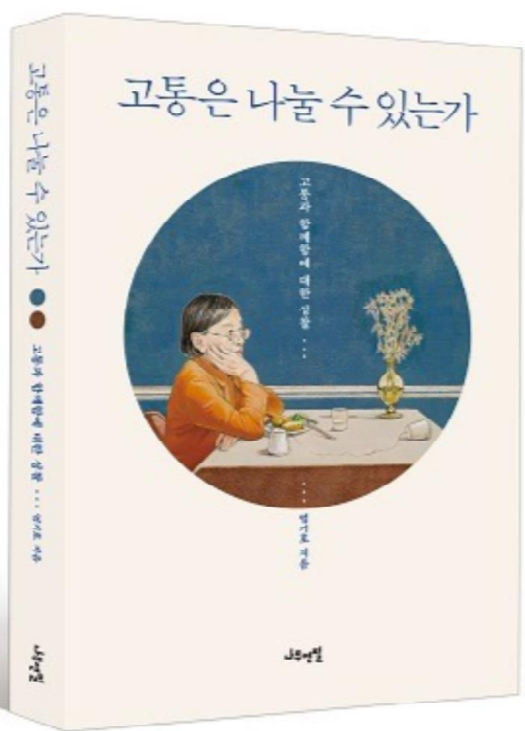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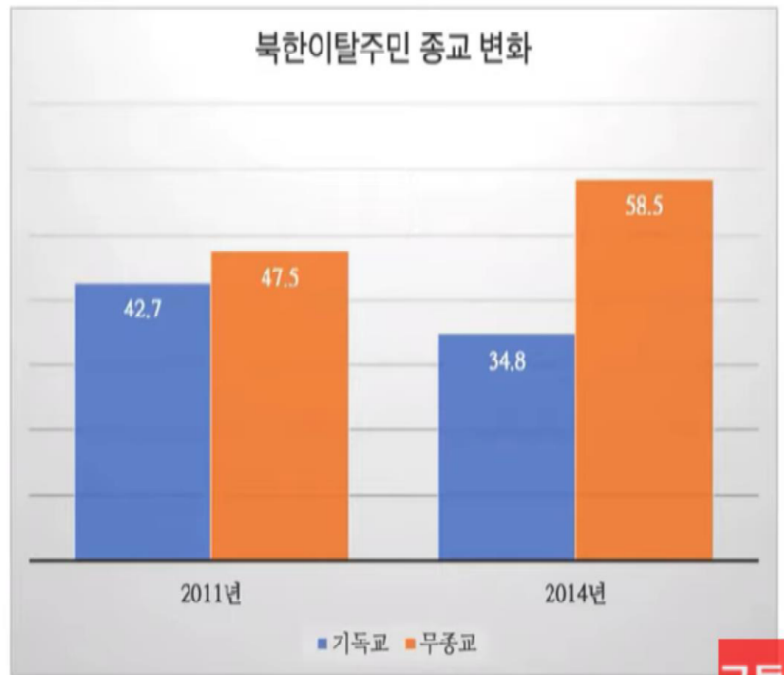


통일의 마중물TV/아카데미2기

* 출처: 김의혁 교수님 강의 PPT

• 기독교 42.7% / 무종교 47.5%
(2011년 통계. 최종응답자 8,299명)

• 기독교 34.8% / 무종교 58.5%
(2014년 통계. (최종응답자 12,777명)



- 과연 고통은 말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을까?
 - "너희는 내 고통을 몰라!"
- 같은 고통(상처,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 초기에는 위로가 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갈등**으로 변질
 - "너만 그래? 나는 그런 일 없는지 알아? 유난 떨기는..." 등 갈등 발생
- 그래도 "**결**"에 있는 것이 고통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
 - 지속성을 갖고 곁에 있는 것이 중요! 곁은 **희망**을 줄 수 있음!
 - 고통 받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 긴 병에 효자/효녀 없다!
 -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또 다른 곁 있는 사람이 중요함! 즉, **공동체**가 중요함!

THANK YOU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강

금요기도회 설교 및 특강 - 강철민 목사

비를 준비하는 지혜

(해방과 분단, 6.25 전쟁의 과거 역사를 통해,
통일을 준비하는 사명을 준비)



해방과 분단, 6.25전쟁의 과거 역사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의 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시 새겨 보고자 합니다.

- 총회새터민종합상담센터 소장 (현)
- 하나원 하나교회 초대담임 (전)

성경 : 열왕기상 18:41-46, 마태복음 10:16

찬송 : 580, 595

비를 준비하는 지혜

I. 서언

해방 및 분단 77주년

6.25전쟁 72주년

II. 미스터 선샤인

“독립된 조국에서 만나자”

눈부신 날이었다.

우리 모두는 불꽃이었고,

모두가 뜨겁게 피고 졌다.

그리고 또다시 타오르려 한다.

동지들이 남긴 불씨로.

나의 영어는 아직 늘지 않아서 작별 인사는 짧았다.

잘 가요 동지들.

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

III. 울밑에 선 봉선화

1) 식민지 서러움

울밑에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 필적에

어여쁜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어언간에 여름가고 가을바람 솔솔불어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진노하니
낙화로다 늙어졌다 네모양이 처량하다

북풍한설 찬바람에 네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이 예 있으니
화창스런 봄바람에 환생기를 바라노라

2)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며는
삼각산(三角山)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면
나는 밤하늘의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鐘路)의 인경(人磬)을 머리로 드리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恨)이 남으리까

그 날이 와서, 오오, 그 날이 와서
육조(六曹)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족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3) “해방이 될 줄 몰랐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10년 전에는 꿈에도 몰랐다”

IV. 해방과 분단

1) 도적같이 온 그날
“1달 마을 잔치”
개 짖는 소리도 “만세”

2) 해방의 이중성
”기쁘면서도 슬픈 날 ”

“좋다가 만 날”

3) 6.25 전쟁 72년

6.25노래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

↓

5년 전만 해도 동포 (4년 10개월 20일 전)

4) 분단장기화

‘북한이 이렇게 가까운 줄 미처 몰랐다’

V. 엘리야의 기도

1) 삼년가뭄

비의 소식

엘리야 갈멜산 정상 기도

2)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7번째 들려온 소식

3) 남북 관계 최근의 변화

캄캄한 상황 그러나 최근 변화의 조짐

남북관계 -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VI. 남북 미래 준비

1) 비에 대비하는 준비

『통일 대박』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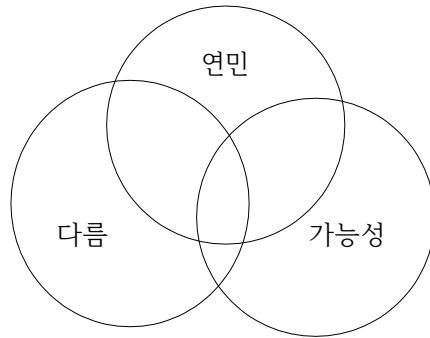
2) 동·서·독 통일의 교훈

첫째는 "북한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세세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

둘째는 "독일이 통일 뒤에 벌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한국은 지금부터 미리 시작하였으면 좋겠다."

VII. 새터민과 함께 준비하는 남북미래

1) 새터민의 내면에 혼재된 세가지 측면



2) 새터민의 역할과 기여 가능성

VIII. 남북 분단 이전 북한기독교

1) 남북분단 이전 북한기독교의 부흥

1945년 해방 당시 남한의 인구는 북한인구의 2배 정도 많았으나, 기독교회의 숫자는 오히려 북한이 남한에 비하여 4배, 기독교 신자의 수는 북한이 남한에 비하여 3배에 달하였다.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 혹은 ‘한국의 예루살렘’ 등으로 불리웠고, 해방 전후 한국기독교 인구의 70% 전후를 북한에 두고 있었다는 통계도 있다.¹⁾

	인구	교회	신자
남한	2000만 여명	650여개	12여만명
북한	1000만 여명	2500여개	35여만명

- 1945년 해방 당시 남북한 인구 및 교회, 교인수²⁾ -

2) 동양의 예루살렘’ 혹은 ‘한국의 예루살렘’ 이라는 평판마저 있었던 북한지역의 기독교의 상

1) 김흥수, 『해방 후 북한 교회사』 (서울:다산글방, 1992), 17면

2) 조동진, “역사 전환기의 전방위 선교로서의 대북 활동,” 한민족선교정책연구소, 『한국교회 북한선교 정책』 (서울:한민족과 선교, 2002), 202면. 재구성.

황은 다음과 같은 기록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평양은 아름다운 도시이다... 선교사들과 여행객들은 평양을 구경하고서는 이구동성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의 하나가 평양이라고 했다. ... 평양에는 기독교인들이 유별나게 많았다, 그래서 주일에는 가게 문을 닫는 곳이 많았다. 평양 한 가운데만 삼십 개가 넘는 교회가 있었다. 매주 일요일에는 삼십여개의 종소리가 일제히 전 시내로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는지 모른다.”³⁾

IX. 맺는말

1) 화목하게 하는 직책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고후 5:18)”

2) 사지구순(蛇智鳩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3) 배민수著 박노원譯, 「누가 그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서울:연세대학교출판부,1999), 88-89면.

5강

감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 김권능 목사

고난의 행군으로부터 탈북과 복음을 듣게 되고,
목사로 부름 받은 하나님의 사역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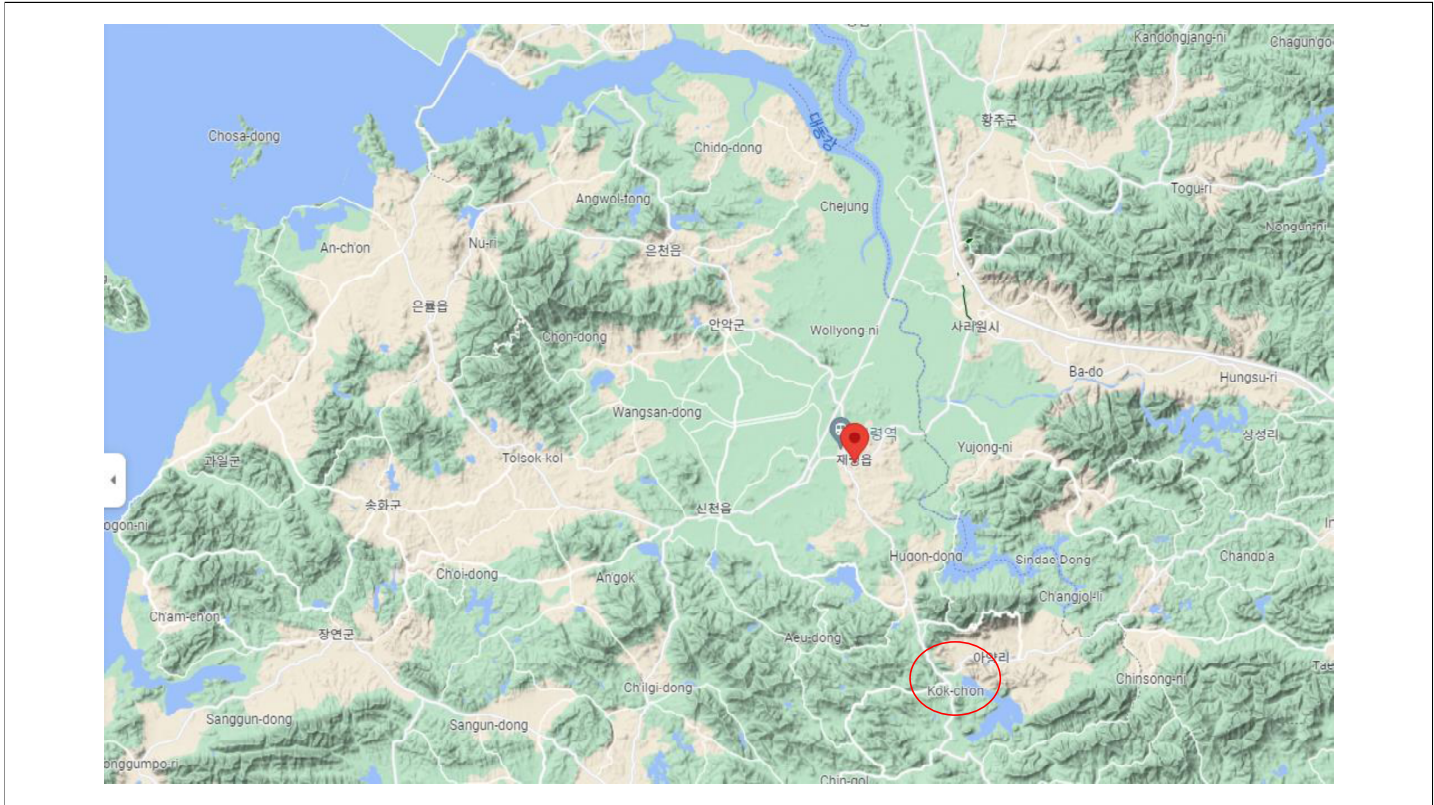
1990년대 후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 기간 배고픔과 그곳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배고픔을 피해 대량 탈북의 시기 겪어야 했던 시련과 복음을 듣게 된 이야기
“복음통일”은 단순히 교회의 구호가 아닌 북한을 치유하고 회복할 유일한 선택인 이유
순교자들에 관한 이야기와 옥중생활 10년 이야기...등을 나눕니다.

- 대한민국 입국 10년차 탈북민 목회자
- 총신대학원 졸업
- 현 송실대학원 박사 4학기 (현)
- 인천한나라은혜교회 담임 (현)
-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현)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시102편 17-22

- 17.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 18.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 19.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피 보셨으니
- 20.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 21.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 22. 그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공개처형





1999년 12월 16일 중국 사천성







탈북민선교의 어제와 오늘





오늘도 멀리 타향 길에서



순교자 진창결 (칼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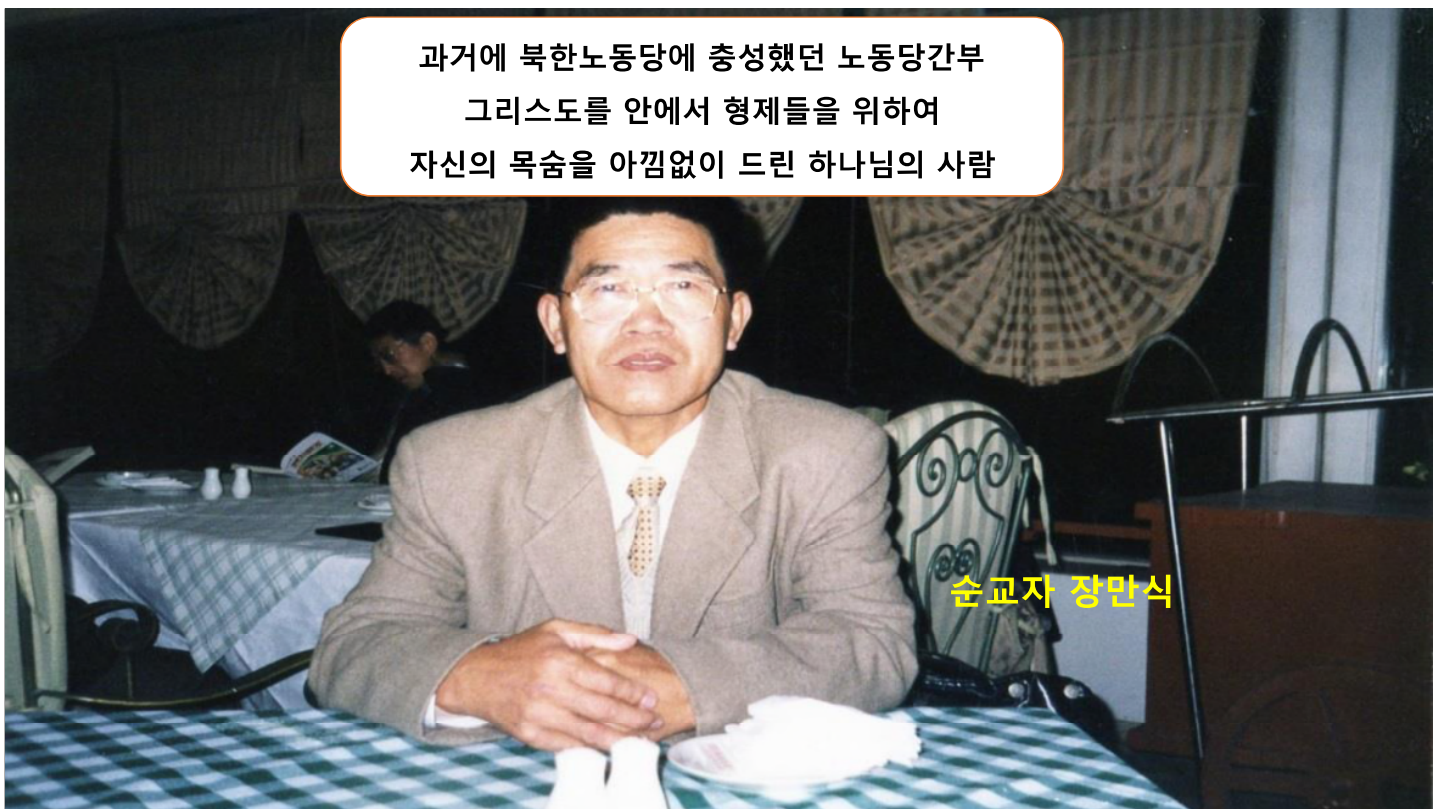


순교자 박명일 (요한)

북한 복음화를 위하여 **피**를 흘린 **사람들**



과거에 북한노동당에 충성했던 노동당간부
그리스도를 안에서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드린 하나님의 사람



순교자 장만식

그래서 우리도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오히려 기뻐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결코 헛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 할 뿐입니다.
 내 나이 59세이지만 진리를 깨달은 자의 힘을 받은 대로 가려져 왔습니다.
 의인 열명만 있으면 나라가 구원 확실히 있다고 하였으니
 그 열명중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할 것입니다.

2000. 6. 10
 탈북자 장 병석 문인.



중 몽 국 경



2002년 3월 16일

“3·16”特大跨国偷渡案在延吉开庭审理 7人被审

新华社 2002-12-05 10:26:17

【新华社吉林电】

新华社长春12月5日电(记者 苑基荣 姜文超)受境外组织和团体指派的贾春一、金京日等人策划的“3·16”特大跨国偷渡案,4日、5日在吉林省延边朝鲜族自治州开庭审理。



根据公诉人的指控,犯有“组织他人偷越国境罪”的有7人,外籍的贾春一和金京日是主要犯罪嫌疑人,从2001年8月到2002年4月间,金京日、贾春一伙同贾茂根、金寿山、卢艺文、金明铁、刘光津等人,受境外组织和团体指使,勾结国内不法分子,先后多次组织偷越国境。

办案人员介绍,“3·16”案件的犯罪嫌疑人均运用网络化和高科技的手段,反侦查能力比较强,贾春一、金京日等人采取了租用民船作为收留偷渡人据点的办法,对偷渡人进行逃避公安机关盘查的技能培训,同时,这些人行动诡秘,有时直接在国外指挥,为防止被发现,采取单线联系的方法指挥骨干分子,金京日等人懂汉语、会电脑,每天上网了解情况,是团伙中的核心人物。

据延边州公安边防支队介绍,案件发生后,各级公安机关高度重视,迅速



日,“3·16”特大跨国偷渡案犯罪嫌疑人法庭
家军 摄





2011년 12월 19일



2012년 03월 16일



2012년
4월 17일



2019년 10월 17일



감사합니다.

MEMO

MEMO

